

제1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혹시 ‘산천어 축제’, ‘나비 축제’, ‘소싸움 축제’ 등의 동물 축제를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친구들의 대답을 들은 후) 네, 상당히 많은 동물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동물 축제들을 조사해 보니, 그 실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국의 동물 축제 분포와 그 유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림을 가리키며)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동물 축제의 수는 약 86개인데, 이 중 84%는 맨손 잡기, 낚시, 채집 등의 방법으로 동물에게 피해를 가하는 1차 유형에 해당합니다. 반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동물들의 서식지를 관찰하는 2, 3차 유형은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최근 생명 다양성 재단에서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 주며) 이 화면에는 그 연구 결과가 간단하게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x축은 1~5로 강도를 나타낸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y축은 각각의 강도에 해당하는 축제 프로그램의 수를 나타냅니다. 국내 동물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129개 중 108개가 가장 강한 강도인 5에 해당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이시나요? 강도 5는 ‘죽거나 죽는 것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음’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즉 동물 축제의 대다수는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축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산천어 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한 화면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산천어는 원래 △△ 지역에 사는 종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물고기를 인공적으로 △△ 지역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원래 개울가에서 소수만 서식하고 있는 산천어들을 갑자기 한군데에 엄청난 밀도로 몰아놓기 때문에 산천어가 받는 스트레스 지수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며) 낚시 바늘이 한꺼번에 물 안으로 수만 개가 내려오는 축제장이 보이십니까? 산천어 입장에서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 반딧불이 축제’나 ‘◇◇ 세계 철새 축제’와 같이 동물 친화성 종합 평가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축제들도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 주며) 하지만 다음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86개의 전국 동물 축제 중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은 3개,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은 11개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80%가 20점 이하라는 사실은 동물 축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 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동물 축제를 이어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학생의 발표 계획안이다. 발표에 반영된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 주제	동물 축제의 실태	
발표 단계 및 발표 내용	도입	• 동물 축제의 분포와 유형 제시 ㉠
	전개	•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사가 대부분인 동물 축제 ㉡ • △△ 산천어 축제를 통해 바라 본 동물 축제의 문제점 - 지역의 생태 환경과 맞지 않는 동물 축제... ㉢ - 동물 축제로 인해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 ㉣
	정리	동물 축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고민 ㉤

- ① ㉠: 지도를 활용하여 동물 축제의 분포 현황을 보여 주며 동물 축제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그래프를 활용하여 대다수의 동물 축제에서 동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인터넷으로 검색한 화면을 활용하여 산천어의 서식 환경을 보여 주며 △△ 지역의 생태적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 ④ ㉣: 동영상을 활용하여 산천어 축제장에서 희생당한 동물들의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 ⑤ ㉤: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동물 친화성 종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의 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자1: 동물 축제는 체험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런데 ‘□□ 반딧불이 축제’나 ‘◇◇ 세계 철새 축제’와 같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쉬웠어.

청자2: 지난해 열린 산천어 축제의 경제 효과만 약 1300억 원이라고 하니, 동물 축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청자3: 나는 발표자의 생각에 동의해. 산천어 축제에 실제로 가 보았는데, 잡은 물고기를 장난감 다루듯이 가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야생 동물들은 자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

- ① 청자1은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청자2는 발표 내용에 대해 발표자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군.
- ③ 청자3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으며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있군.
- ④ 청자1과 청자3 모두 발표자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군.
- ⑤ 청자2와 청자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3~7] (가)는 공개 토론 장면의 일부이며,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지금부터 ‘휴일에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우리 학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학교 시설을 학생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휴일에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저도 휴일에 가장 가까운 ○○ 시립 도서관에 가기 위해 집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이나 가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휴일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휴일에 학교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자습실 등을 휴일에도 개방하면 학생들은 공부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어 수업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2: 휴일에 도서관과 자습실을 개방하는 것이 수업 분위기의 개선과 관련이 있을까요?

찬성 1: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세요.

반대 1: 저는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휴일에 학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학교를 개방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휴일에 학교를 개방할 경우 공부를 하기보다는 학교에 있는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며, 그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커질 것입니다. 또한 휴일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생님이나 관리 요원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찬성 2: 지금도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반대 1: 생각해 보니 휴일에도 안전지킴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네요.

사회자: 반대 측, 반론해 주세요.

반대 1: 현재 우리 학교는 평일 저녁에 도서관과 자습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학습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로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독서실이나 자신이 다니는 학원의 자습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학교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크게 달라질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이번엔 찬성 측에서 반론해 주세요.

찬성 1: 반대 측에서 휴일에 학교 개방을 하게 되면 공부보다 체육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누구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학교를 개방하고 있는 인근 △△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체육 활동을 위해 주말에 방문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

며칠 전에 진행된 휴일 학교 개방에 대한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여하였다. 절차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심도 있게 오갔으며 참여자들 모두 진지하게 토론회에 임하여 건설적인 토론이 되었다. 해당 토론이 학교의 올바른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찬성 측은 입론에서 휴일에 공부를 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아 학교 개방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며칠 전 학생회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평일에 하지 못했던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말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학생들이 휴일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 때문에 이 토론이 열렸는데 반대 측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론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토론 단계에 따른 발언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자. 반대 측은 입론에서 상대측이 주장한 대로 휴일에 학교를 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반대 측이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입론 단계의 특성상 적합한 발언이다. 그런데 휴일에 학교에 근무하시는 안전지킴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휴일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찬성 측의 발언은 안전지킴이 선생님이 화재나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상대측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허점을 지적하는 반대 신문으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평일 저녁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적다는 것을 근거로 휴일 학교 시설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평일 저녁과 휴일의 상황이 같을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뿐더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나는 이 토론을 보면서 우리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로 어떤 곳이 있는지 의문이 생겨 추가로 조사해 보았다. ○○ 시립 도서관은 찬성 측이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과 주민 자치 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 지원 센터가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곳들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휴일에도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학교 선생님께서 앞으로 미리 허락을 받으면 휴일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이번 토론회의 또 다른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3. (가)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휴일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 ② 휴일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 면학 분위기가 형성된다.
- ③ 휴일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④ 휴일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⑤ 휴일에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

4. (가)의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지적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비유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찬성 2’는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이 말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반론에서 현재의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유사 상황을 제시하여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5. <보기>의 ㉠~㉣ 중 ‘찬성 1’의 반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체로 반론에서는 ㉠ 상대방이 입론에서 제시한 주장을 언급한 후, ㉡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때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 상대방이 제시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 또는 ㉣ 해당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가능한 실태를 제시하며, ㉤ 반박을 뒷받침할 유사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최근 열린 토론회의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② 토론회가 개최된 목적과 관련하여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밝혀야겠어.
- ③ 토론을 들은 후에 내가 추가로 진행했던 조사 활동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토론에 참석한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하며 찬반 양측의 자료 수집이 미흡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야겠어.
- ⑤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의의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7. 다음은 (나)의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한 토론 평가 항목이다. 글을 쓴 후, 이를 바탕으로 (나)를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토론 평가	㉠ 찬성 측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평가
	㉡ 반대 측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평가
	㉢ 입론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의 적합성 평가
	㉣ 반대 신문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의 적합성 평가
	㉤ 반론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의 적합성 평가

- ① ㉠: 필자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설문 조사 결과를 들어, 찬성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② ㉡: 필자는 반대 측이 휴일에 학교를 개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③ ㉢: 필자는 반대 측이 상대측의 주장대로 휴일에 학교를 개방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반박한 점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 ④ ㉣: 필자는 찬성 측이 반대 신문 단계에서 안전지킴이 선생님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⑤ ㉤: 필자는 반대 측이 휴일 학교 개방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기고한 학생의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후 다른 학생이 같은 신문에 기고한 반박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치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청소년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근거를 들어 현재 만 19세인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만 18세는 실질적으로 성년으로 인정받는 나이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만 18세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됩니다. 이는 성년으로서의 의무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 18세부터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근로를 할 수 있고 공무원에도 임용될 수 있으며, 결혼도 가능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은 선거에 직접 참여할 만한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여러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정치가 만 18세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 문제와 입시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접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고, 선거가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나)

얼마 전 학교 신문에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글이 실린 후 학교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반대하며 그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법에서의 성년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성년이 되면 여러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면 성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만한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정치적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정보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얻는 것이 많아 편향된 정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접하는 편향된 정보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가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교육 문제의 경우도 사실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입시 정책의 경우만 해도 당시의 중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선거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입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부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선거를 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토론회 등 [A] 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사람됨을 지켜봐야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껴 선거권을 반대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 헌법 재판소에서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만 19세 미만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만 18세 청소년들은 현행법에서 아직 미성년이며 정치적 판단을 위한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선거가 만 18세 청소년들의 입시와 관련도 없으면서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을 반대합니다.

8. <보기>는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일까?
 ㄴ.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ㄷ.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일까?
 ㄹ.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무엇일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하여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다.
 ② 앞서 제시한 (가)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글의 후반부에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③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여 (가)의 주장을 반박한다.
 ④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⑤ 정치가 만 18세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10. (가)를 쓴 학생이 (나)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A]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것은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② 학생들도 다양하면서도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학생 인터뷰를, 학생들이 편향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③ 만 18세 청소년들이 선거권 부여에 대해 대부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이들이 선거에 부담을 느껴 선거권을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④ 만 19세 미만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을 위한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⑤ 교육 공약은 대학 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정치가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며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또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하며,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 중에는 같은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주위 환경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달라진 한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이형태’라고 한다. 이형태는 음운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음운론적 이형태는 주격 조사 ‘이/가’, 명령 또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라 / -아라’와 같이 앞말의 받침 유무나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이냐와 같은 음운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이형태를 뜻한다. 한편 ‘먹었다’의 ‘-었-’과 ‘하였다’의 ‘-였-’은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그 형태는 서로 다르며, 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중세 국어에서도 격 조사 등에서 이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격 조사 ‘이’는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ㅣ’나 반모음 ‘ㅍ’ 뒤에서는 ‘∅(zero)’의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되었다. 목적격 조사는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을/을’,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를/를/르’의 형태로 실현되었는데 ‘을/을’과 ‘를/를’의 사용은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이냐에 의해 결정되었다. 앞말의 모음이 ‘ㅣ’로 끝날 경우에는 양성에 붙는 목적격 조사가 쓰였다. 또한 관형격 조사는 ‘이/의, ㅅ’이 사용되었는데, ‘이/의’가 평칭의 유정 명사에서 앞말의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이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반면, ‘ㅅ’은 앞말의 음운 환경과 상관없이 무정 명사나 높임의 유정 명사에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 ㉡의 형태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나는 산으로 가서 별을 보았다.
- ㉡: 형은 나와 함께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먹었다.

- ① ㉠의 형태소 개수는 11개이다.
- ② ㉡의 자립 형태소 개수는 의존 형태소 개수보다 적다.
- ③ ㉡의 실질 형태소 개수는 ㉠의 실질 형태소 개수보다 3개 많다.
- ④ ㉠의 ‘으로’와 ㉡의 ‘로’는 앞말의 음운 환경의 차이로 인해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 ⑤ ㉠의 ‘-았-’과 ㉡의 ‘-었-’은 문법적 기능이 같음에도 형태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론적 이형태에 해당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내 이룰 위하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 (나) 부텃 숭리룰 피셔다가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부처의 사리를 모셔다가)
- (다) 하늬 버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 (라) 賈鯁이 슬허 눈므를 내요되 <번역 소학>
(현대어 풀이: 가속이 슬퍼 눈물을 흘리되)
- (마) 父母ㅣ 아들이 마를 드르샤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① (가)의 ‘내’에 사용된 주격 조사와 (마)의 ‘父母ㅣ’에 사용된 주격 조사의 형태가 같은 것은 앞말이 모두 ‘ㅣ’나 반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겠군.
- ② (가)의 ‘이룰’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와 (나)의 ‘숭리룰’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같은 것은 앞말이 모두 ‘ㅣ’로 끝났기 때문이겠군.
- ③ (나)의 ‘부텃’에 사용된 관형격 조사가 (마)의 ‘아들이’에 사용된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다른 것은 앞말이 높임의 유정 명사이기 때문이겠군.
- ④ (다)의 ‘버리’에 사용된 주격 조사가 (라)의 ‘賈鯁이’에 사용된 주격 조사와 형태가 다른 것은 앞말이 반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겠군.
- ⑤ (라)의 ‘눈므를’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가 (마)의 ‘마를’에 사용된 목적격 조사와 형태가 다른 것은 앞말의 모음이 음성 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이겠군.

13. <보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굽는 → [궁는]
 - ㉡ 샷일 → [상닐]
 - ㉢ 활이다 → [할치다]
 - ㉣ 옷맵시 → [온맵씨]

- ① ㉠, ㉣은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다.
- ② ㉠,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 ③ ㉡,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④ ㉡, ㉣은 각각 3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⑤ ㉢, ㉣은 모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1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ㄱ. 그녀는 솜씨가 훌륭하다.
 ㄴ. 이 사과를 내가 내일 먹을 간식이야.
 ㄷ. 나는 그가 정직함을 뒤늦게 깨달았다.
 ㄹ. 그는 “내가 네게 사과할게.”라고 하였다.
 ㅁ. 우리는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켰다.

- ① ㄱ은 특별한 표지 없이 안긴문장이 실현되고 있으며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② ㄴ의 안긴문장은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실현되고 있으며 주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③ ㄷ의 안긴문장은 명사형 어미가 붙어 실현되고 있으며 안은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ㄹ의 안긴문장은 보조사가 결합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안은문장의 주어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⑤ ㅁ의 안긴문장은 부사형 어미가 붙어 실현되고 있으며 ㅁ에서 안긴문장을 생략해도 문장의 성립이 가능하다.

15. 다음 담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영과 재호가 체육 대회 때 입을 단체복을 고르고 있다.)

호영: 재호야, ㉠ 여기 좀 봐 볼래?

재호: (호영을 바라보다가) ㉡ 그거는 좀 튀지 않아? ㉢ 아무도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데.

호영: 너는 꼭 내 의견에 판지를 걸더라.

재호: ㉣ 우리 호영이가 왜 화가 났을까? 나는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이야.

호영: 이번에는 내 의견에 따라 줬으면 좋겠어.

재호: 알았어. 체육 대회가 정확히 ㉤ 언제지? 늦지 않게 배송됐으면 좋겠다.

- ① ㉠은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② ㉡은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③ ㉢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대명사이다.
 ④ ㉣은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⑤ ㉤은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십여 미터쯤 걸어가자 좌측에 시장이 나타났다. 십여 미터쯤 더 걸어가자 지금껏 걸어온 길이 두 갈래의 좁은 골목으로 양분되는 지점에 그리 크지 않은 교회 건물이 나타났다. 우측의 경사진 골목으로 접어들어 다시 십여 미터쯤 걸어간 뒤, 그녀는 다시 한 번 우측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팔진 언덕길이 나타났다. 하지만 경사각이 사십 도를 상회할 것 같은 그 언덕길을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내쳐 걸어 오르기 시작했다. 고난스러운 오르막이 절정을 이루는 지점, 놀랍게도 그녀의 거처는 그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의 평지에 지어진 삼층 양옥, 그것도 옥상 위.

지상의 방인가, 천상의 방인가.

그녀의 난폭한 초대로 난생 처음 방문하게 된 옥탑방은 이십오 평 정도의 옥상이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옥탑방이 **십오 평 정도의 공간**을 점하고 있었으니 옥상 넓이에서 옥탑방의 넓이를 제한 십여 평 정도의 면적은 고스란히 콘크리트 마당이랄 수 있었다. 하지만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잡은 삼층 건물 옥상, 거기서 내려다보는 지상의 밤풍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경사진 비탈을 따라 집들이 다다다 달라붙은 달동네와 싹뚝처럼 뒤엉킨 좁은 골목길,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내다보이는 고층 건물과 즐비한 차량의 행렬……. 그것은 보면 볼수록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가련한 고난의 세계**가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뒤틀린 심사로 굽어보면 한없이 가소로운 미물의 세계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가 저런 곳이다 발을 딛고 살아왔던가. 줄지어 이동하는 개미 행렬을 향해 오줌 줄기를 갈겨 대던 어린 시절이 문득 기억에서 되살아날 정도였다. 내가 공포감을 느끼던 5층-6층-11층-17층 같은 곳에서는 전혀 느껴 보지 못한 감정, 그리고 비로소 되새겨지는 인간의 미물스러움.

옥탑방의 내부는 반으로 나뉘어 왼편에는 방이 있었고, 오른편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었다. 얇은 화장품 냄새가 배어 있는 방에는 작은 화장대와 상(床), 그리고 옷장이 놓여 있었다. 몇 가지의 취사도구가 눈에 띄는 주방을 먼저 보고, 곧이어 주방을 통해 방으로 들어간 뒤에 나는 그녀가 가슴에 빗장을 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젓과 꼴이 흐르는 현대판 가나안**, 풍요로운 물질의 바다와 같은 백화점에서 가장 화려한 제복을 입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근무하는 상징적인 존재 - 그녀가 이렇게 웅색한 옥탑방에다 등지를 틀고 있으리라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으랴.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나도 할 말이 없어 반쯤 고개를 들고 망연한 눈빛으로 맞은편 벽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와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나마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와 나는 온전하게 교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어야겠으니 잠시만 밖으로 나가 있어 달라고 그녀가 자조적인 표정으로 말했을 때, 교감에 대한 나의 확신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

십 분쯤 지난 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콘크리트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옥상을 둘러싼 낮은 에움벽 앞에 붙어서서 담배를 피우며 지상을 내려다보는 내 옆으로 다가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한없이 미물스러워 보이는 인간의 세계, 그리고 가련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자만심을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팔짱을 끼고 지상을 내려다보던 그녀, 나와는 견해가 다르다는 듯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 민수 씨가 한 말은 신들에게나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 서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굽어보면…… 저 낮은 곳으로 두 번 다시는 내려가기가 싫어져요. 저 가파른 언덕길을 하루에 두 번씩 힘겹게 오르내리며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아세요? 지금 민수 씨가 말한 저 가련한 고난의 세계, 저곳이 아무리 미물스럽고 속물스럽다고 해도…… 그래도 저곳으로 내려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다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키워 온 내 꿈이에요. 저곳의 주민이 되고, 저곳의 주민들처럼 미물스럽고 속물스럽게 사는 거…… 그게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꿈이라구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꿈?”

젓과 꿀이 흐르는 현대판 가나안, 물질로 구현된 꿈의 성전을 떠올리며 나는 물었다. 꿈에 주린 사람들을 성전으로 안내하는 그녀의 꿈, 어쩌면 옥탑방처럼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요컨대 정신적 측면을 무시하는 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지상의 주민이 되어 **미물스럽고 속물스러운 세계**에 안주한다는 거…… 어쩌면 인간적인 타락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면…… 어떤 식으로도 난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착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쩌거나 그건 신들이 노여워할 만한 꿈이로군.”

“그래요. 신 같은 건 믿어 본 적도 없으니까, 설령 내 꿈이 사악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든 그것이 나에게 살아갈 힘이 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난 꿈을 꾸듯 현실을 견디고 있을 뿐이니까요…… 아침마다 이곳을 내려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내가 **③ 불완전한 지상의 주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루 일을 끝내고 이곳으로 올라오면…… 그래요, 여기가 마치 내 꿈이 자라는 온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 **사악한 꿈이 자라는 비밀스러운 온상**…… 내가 이곳을 민수 씨에게 보여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죠?”

“글쎄, 따뜻한 배려는 아닌 것 같군.”

다소 황당한 표정으로 나는 얼버무렸다. 불완전한 지상의 주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아세요? 그녀의 물음에서 형언할 길 없이 깊고 드넓은 공감대가 느껴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⑤ 불완전한 지상의 주민**이면서도 그것을 절실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무지가 아프게 되새겨진 때문이었다.

“민수 씨가 나에게 커피를 사 주던 날…… 백화점의 5층 매장으로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나를 훑쳐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잠시 나의 꿈을 잊고 있었어요. 회사가 있는 11층과 형네 집이 있는 17층으로 올라가는 일이 죽기보다 싫다는 얘기까지 듣고 나서…… 어쩌면 이 사람도 지상의 주민이 되지 못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민수 씨를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는 민수 씨처럼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나를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나의 꿈 때문에 민수 씨가 상처 받게 될까 봐…… 그래서 오늘 민수 씨에게 내 꿈의 온상을 보여 주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 씨가 훑쳐보던 그 여자가 아직도 나라고 생각되나요?”

묻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섰다.

- 박상우, 「내 마음의 옥탑방」 -

16. 윗글의 ‘나’와 ‘그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그녀’의 옥탑방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녀’가 옥탑방에 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② ‘나’는 옥상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최근의 삶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 ③ ‘나’는 옥탑방에서 ‘그녀’와 서로 교감했다는 확신이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 ④ ‘그녀’는 옥탑방을 본 후 ‘그녀’에 대한 ‘나’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그녀’는 인간들의 자만심을 비판하는 ‘나’의 견해에 대해 사람들이 정신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며 수긍하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욕망을 실현하지 못해, ㉡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 ② ㉠과 ㉡는 모두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거부하지 못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이다.
- ③ ㉠과 ㉡는 모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 ④ ㉠은 ㉡와 달리 신의 섭리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종교적 세계관을 지닌 존재이다.
- ⑤ ㉠은 ㉡와 달리 도회적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는 태도를 지닌 존재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 속에서 공간은 단순히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공간도 포괄한다. 공간은 시간과 결합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사실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현대 소설에 들어오면서 공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는데, 그중에서도 현대 작가들은 폐쇄된 공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방’이나 ‘집’과 같은 닫힌 공간이 작중 인물들의 심리적 세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객관적 상관물 또는 상징적 공간으로 선호되는 것이다.

- ① 삼층 양옥의 옥상에 ‘옥탑방’이 ‘십오 평 정도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은 ‘옥탑방’이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임을 보여 주는 군.
- ② ‘나’가 ‘옥탑방’의 옥상에서 바라본 ‘지상의 밤풍경’을 ‘가련한 고난의 세계’로 인식하는 모습은 소설 속의 공간이 심리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군.
- ③ ‘나’가 ‘옥탑방’과 대비되는 공간인 ‘백화점’을 ‘젓과 꿀이 흐르는 현대판 가나안’이라고 여기는 모습은 ‘나’에게 ‘백화점’이 물질주의의 상징적 공간임을 보여 주는 군.
- ④ ‘그녀’가 ‘백화점’을 ‘미물스럽고 속물스러운 세계’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은 ‘그녀’에게 ‘백화점’이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현실을 견디’는 폐쇄된 공간임을 보여 주는 군.
- ⑤ ‘그녀’가 ‘옥탑방’을 ‘사악한 꿈이 자라는 비밀스러운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옥탑방’이 작중 인물의 심리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임을 보여 주는 군.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1년에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는 연봉으로 8만 달러를, 당시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는 연봉으로 7만 5천 달러를 ㉠ 받았다. 80여 년이 지난 2012년에 뉴욕 양키스 선수들 연봉의 중간값*은 190만 달러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4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 그럼 1931년에 베이브 루스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받은 연봉은 2012년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의복·임대료 등과 같은 460개 항목을 대상으로 산출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매달 발표하는데, 때로 식품이라는 일반적 항목 대신 유제품, 육가공 제품과 같이 더 세부적인 항목이 ㉢ 들어가기도 하며, 우유, 아이스크림 등과 같이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항목의 수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미국에서는 수천 개 항목의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재화와 서비스를 ㉣ 헤아려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품목과 그 품목의 소비량, 즉 재화 묶음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쌀과 밀가루 두 가지 재화만 생산하며, A국의 소비자들이 쌀을 밀가루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면 재화 묶음은 ‘밀가루 두 단위, 쌀 네 단위’와 같이 정하게 되는데, 이처럼 재화 묶음을 통해 해당 나라의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재화 묶음을 결정한 후에는 각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시점에서 재화 묶음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한다. 위에 제시된 A국의 사례에서 특정 연도의 밀가루 가격이 천 원이고, 쌀 가격이 이천 원이라면 그 해의 재화 묶음 구입 비용은 만 원이 된다. 이 비용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든지 간에 구매하는 물건의 수량은 ㉤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재화 묶음의 수량적 측면을 고정함으로써 가격 변동의 효과와 수량 변화의 효과를 분리하여 가격 변동의 효과에만 주목하는 것이다. 재화 묶음 구입에 드는 소요 비용을 계산한 후에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준 연도를 정하는데, 기준 연도를 어느 해로 정해도 상관 없다. 기준 연도의 소요 비용과 산출하고자 하는 측정 연도의 소요 비용을 구한 다음, 측정 연도의 소요 비용을 기준 연도의 소요 비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주면 측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할 수 있다. 기준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100이기 때문에, 측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에는 기준 연도에 비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하면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을 통해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 가치를 ㉥ 손쉽게 비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대비 2017년의 물가 상승률을 구하려면 2016과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동일한 기준 연도로 산출한 뒤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2016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뺀 값을 2016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이때 물가 상승률이 0보다 큰 값을 지닌다면 2016년보다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0보다 작다면 2016년보다 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연도의 금액 가치를 현재의 금액 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동일한 기준 연도를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자 물가 지수

와 특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한 후, 현재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특정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눈 값에 특정 연도의 금액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1982~1984년을 기준 연도로 한 미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31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2, 2012년에는 229.5였다. 이 수치를 사용하면 베이브 루스의 연봉과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연봉이 2012년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구할 수 있다.

* 중간값: 통계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

19.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개념
- ② 소비자 물가 지수와 경제 정책과의 관련성
- ③ 소비자 물가 지수와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방법
- ④ 재화 묶음에 포함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
- 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사하는 기관과 발표 주기

2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에는 재화 묶음의 수량 변화를 고려한다.
- ② 재화 묶음의 소요 비용이 가장 적은 연도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준 연도로 정해진다.
- ③ ‘지우개’, ‘망치’와 같은 개별 품목의 재화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재화 묶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물가 상승률을 산출하는 나라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할 때 동일한 재화 묶음을 활용한다.
- ⑤ 전년도에 비해 재화 묶음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보다 커진다.

21. ㉡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베이브 루스의 연봉 > 뉴욕 양키스 선수 연봉의 중간값
허버트 후버의 연봉 >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
- ② 베이브 루스의 연봉 > 뉴욕 양키스 선수 연봉의 중간값
허버트 후버의 연봉 <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
- ③ 베이브 루스의 연봉 < 뉴욕 양키스 선수 연봉의 중간값
허버트 후버의 연봉 >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
- ④ 베이브 루스의 연봉 < 뉴욕 양키스 선수 연봉의 중간값
허버트 후버의 연봉 <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
- ⑤ 베이브 루스의 연봉 = 뉴욕 양키스 선수 연봉의 중간값
허버트 후버의 연봉 <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

22. <보기>는 A국의 재화 묶음에 포함된 재화의 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연도	밀가루	쌀
2015	10,000원	30,000원
2016	20,000원	40,000원
2017	30,000원	50,000원

A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사용되는 재화 묶음은 밀가루 두 단위와 쌀 네 단위이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이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하는 기준 연도는 2015년임.

- ① 2016년의 물가 상승률은 50보다 작다.
- ②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86이다.
- ③ 2016년의 소요 비용은 2015년의 소요 비용보다 60,000원이 많다.
- ④ 2015년의 10,000원의 가치는 2017년의 10,000원의 가치보다 크다.
- ⑤ 2016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한 2017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작다.

23.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령(受領)했다 ② ㉡: 포함(包含)되기도
- ③ ㉢: 고려(考慮)하여 ④ ㉣: 변모(變貌)하지
- ⑤ ㉤: 용이(容易)하게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각 현상은 대상과 주체 간 상호 작용의 산물이다.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물체의 고유색, 빛에 의해 변한 색, 형태, 명암 등이 존재의 권리를 주장한다.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시신경의 반응,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의 초점,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념 등이 존재의 권리를 주장한다. 대상과 주체의 통일은 이중에서 특정 요소를 취사선택하여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회화는 일반적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보다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즉 대상과 주체의 통일 과정에서 대상의 측면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그런데 세잔은 ㉠주체와 대상 양자의 존재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자 하였다. 주체인 화가와 대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존재 권리를 동시에 하나의 화폭에 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잔은 대상의 존재 권리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통일이 라는 명분으로 조작하지 않았다. 대신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체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다. 기존의 회화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상의 사실성을 부각하기 위해 우리가 수용한 시각 정보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색채나 명암, 형태 등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상주의 화가들은 전통적인 회화에서 표현하는 색채가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었다는 점을 비판하였는데, 세잔은 이에 더하여 그 명암, 형태, 그리고 구조까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세잔이 그린 접시는 접시의 윗면이 날렵한 타원이 아니라 원에 ㉡가까운 타원인데, 이는 원형 접시라는 관념과 시점상 날렵한 타원이라는 인식이 충돌한 산물로 보아야 한다. 세잔은 둘 중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둘 모두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잔은 바구니의 용도에 주목하여 바구니 자체보다는 바구니 안에 담긴 물체를 강조하여 표현했다. 우리의 눈은 어떤 대상을 볼 때 모든 부분에 똑같은 관심을 두며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의 존재 권리 또한 함께 존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세잔의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굽은 윤곽선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시각이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대상을 배경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특히 가까이 있는 개체를 볼 때는 두 눈에서 처리하는 시각 정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상과 배경이 보다 뚜렷하게 분리되어 보이는 반면, 멀리 있는 개체를 볼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세잔의 그림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윤곽선의 굽기와 진하기가 약해지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잔의 그림에서는 일직선으로 묘사되어야 할 수평선이 계단처럼 층위가 저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 또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서 처리하는 정보가 다른 데서 비롯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만 주목한 전통적인 회화와 달리 세잔은 대상의 측면을 고려하는 한편 이를 인식하는 주체의 측면까지 아우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세잔은 대상을 묘사할 때 대상의 존재 권리와 주체의 존재 권리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요소로만 실체를 환원하지 않았다. 또한 대상을 사실처럼 묘사하기 위해 오히려 명암과 색채를 조작해 왔던 기존의 회화 양식에 반기를 들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 대상을 그리고자 노력하였다. 대립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으려 했던, 또 공존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요소들을 하나의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던 그의 끊임없는 시도는 메를로퐁티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그의 작품 세계를 자신의 철학과 동일시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상주의 화가들은 전통적인 회화에서 색채를 표현하는 방식을 비판하였다.
- ② 세잔은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을 통일하는 시도를 지양하였다.
- ③ 메를로퐁티는 대립적 요소들이 한 작품 내에 공존하고 있는 회화를 비판하였다.
- ④ 인간이 멀리 있는 개체를 볼 때 두 눈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다.
- ⑤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주체와 대상 간 균형 있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5. ㉠의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고유 형상을 인식한 대로 표현하기 위해 원근법을 무시한 그림
- ② 종교적 가치를 작품 속에 드러내기 위해 성서에 기록된 장면을 구현한 그림
- ③ 내재된 욕망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모양을 일부러 왜곡하여 묘사한 그림
- ④ 물체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명도를 실제 관찰한 수준보다 밝게 처리한 그림
- ⑤ 정신적 차원의 순수함을 나타내기 위해 기하학적인 문양을 겹쳐 묘사한 그림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세잔, 「병,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 ① 테이블의 모서리가 일렬로 반듯하지 않게 묘사된 것은 두 눈에서 처리하는 시각 정보의 차이 때문이겠군.
- ② 바구니가 입체감 없이 묘사된 까닭은 작가가 바구니보다는 안쪽에 담긴 사과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겠군.
- ③ 테이블 뒷부분의 윤곽을 지나치게 강조한 까닭은 인간이 대상을 배경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현상을 반영했기 때문이겠군.
- ④ 사과가 구가 아닌 원에 가깝게 묘사된 까닭은 사실에 가깝게 그리기 위해 명암과 색채를 조작하는 행위를 거부했기 때문이겠군.
- ⑤ 병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묘사된 까닭은 대상과 주체의 존재 권리를 함께 존중하기 위해 실제로 인식한 정보와 다르게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겠군.

27. 밑줄 친 부분이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둘은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사이다.
- ② 아이는 되도록 엄마에게 가깝게 앉았다.
- ③ 무뚝뚝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란 쉽지 않다.
- ④ 그들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 ⑤ 그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백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몰렸다.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무하러 가자 / 이히후후 에헤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세상 인간 같지 않아
 이놈 팔자 무슨 일로 / 지게 목발 못 면하고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모에 풍경 달고
 만석록을 누리건만
 이놈 팔자 어이하여
 항상 지게는 못 면하고 /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 하니 청춘이요 / 사자 하니 고생이라
 세상사 살아진들
치마 찢른 계집 있나 / 다박머리 자식 있나
 광 넓은 논이 있나 / 사례 긴 밭이 있나
 버선짝도 짝이 있고 / 토시짝도 짝이 있고
 털떡신도 짝이 있는데 / **챙이***같은 내 팔자야
 자탄한들 무엇하리 / 한탄한들 무엇하나
 청천에 저 기럭아
 너도 또한 입을 잃고 / 임 찾아서 가는 건가
 더런 놈의 팔자로다
 이놈의 팔자를 / 언제나 면할꼬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면
 어떤 놈이 밥 한술 줄 놈이 있나
 자 가자 이히후후

- 작자 미상, 「초부가」 -

*챙이: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쭈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꿩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꺾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릇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식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깃집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農舞)」 -

(다)

노동을 소재로 한 서정 문학은 고전 시가로부터 현대 시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중 고전 시가인 「초부가」는 민요의 한 하위 갈래인 나무꾼 노래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갈래에서는 “에헤야 에헤야 / 반공에 솟은 고산준령을 / 거침없이 넘어가자”와 같이 힘차게 시작했다가, 차차 신세타령을 늘어놓는 구슬픈 사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하루 동안 나무하는 일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힘찬 어조로 시작되는 사설은 아침에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신선한 기분을, 뒤에 이어지는 구슬픈 신세타령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나무를 하면서 느낀 외롭고 고달픈 심정이 표출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나무꾼 노래의 내용으로 남녀 간의 연분을 엮원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근대화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을 소재로 한 서정 문학은 사회 구조적 모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농무」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생업을 위해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도 결국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산출물을 내다 팔아야 하는 농민들의 처참한 처지를 그려 내고 있다. 이러한 절박하고 처참한 현실 인식 속에서 화자는 춤사위를 그린 장면으로 시상을 매듭짓고 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흥겨움의 표현이지만, 그 이면에는 농민들이 느낀 깊은 울분과 좌절감이 배어 있는 역설적 신명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화자의 애상적 정감을 투영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 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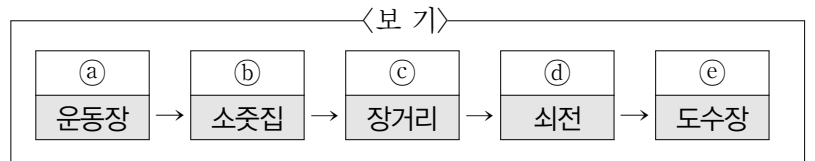
2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 날 적’과 ‘나 날 적’이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세상 인간 같지 않다’는 현실 인식을 ‘이놈’과 ‘어떤 사람’의 ‘팔자’를 견주며 나타내고 있다.
- ③ ‘지게 목발’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대광실’과 ‘만석록’ 같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고 있다.
- ④ ‘죽자 하니 청춘이요 / 사자 하니 고생이라’에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무를 해서 얻은 ‘짐’을 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밤 한술’조차 얻을 방도가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30.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경꾼이 돌아가고’는 한때 관객 앞에서 판이 벌어졌던 공연이 끝난 상황을 나타내는군.
- ② ‘우리가 ‘막이 내’리기 전 펼친 공연은 ‘전등’을 ‘오동나무’에 매단 임시 무대에서 진행되었겠군.
- ③ ‘철없’는 ‘처녀 애들’은 ‘팽과리’를 앞세워 공연에 다시 나선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 중 하나이겠군.
- ④ ‘걱정이’, ‘서림이’와 같이 시적 상황 바깥의 인물 성격을 빌려 ‘어떤 녀석’들의 행동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 ⑤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치고 있는 ‘어편네’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연민과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군.

31. <보기>는 (나)의 시상 전개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한 도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a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바로 공연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② 화자는 b에서, ‘분이 얼룩진’ 모습으로 동료들과 ‘술’을 나누며 고된 인생살이를 한탄하고 있다.
- ③ 화자는 c에서, ‘보름달’이 ‘밝’은 자연의 아름다운 배경에 잠시 도취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화자는 d에서, c를 지나치면서 겪은 갈등 상황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냉소적 어조를 표출하고 있다.
- ⑤ 화자는 e에서, d를 거쳐 이동해 온 과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2.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이히후후 에헤’는 나무꾼 노래 도입부의 힘찬 어조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남의 집도 못 면하고’는 구슬픈 어조의 신세타령이 나타난 사설의 일부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치마 찢른 계집 이냐’는 외로움으로 인해 남녀 간 연분에 대한 바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징이 울린다’는 ‘날라리’와 ‘고깃집’과 호응하며 역설적 신명에 대한 암시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사회 구조적 모순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3~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인 항공기를 통칭하는 드론은 날개의 종류에 따라 비행기처럼 고정된 날개를 지닌 고정익기와 헬리콥터처럼 회전하는 날개인 로터를 지닌 회전익기로 나뉜다. 드론은 종류에 따라 비행 원리가 달라지는데 고정익기의 경우 엔진이나 모터 등에 의해 추력이 생긴 기체(機體)가 활주로를 달릴 때 날개의 위와 아래의 압력 차이에 따라 양력이 발생하여 기체가 뜨게 된다. 양력은 물체에 닿은 유체를 밀어 내려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력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며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다. 회전익기의 경우 로터의 회전을 통해 양력을 발생시키므로 활주로를 달릴 필요가 없으며 양력이 중력보다 크게 되면 기체가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드론으로는 네 개의 로터를 가진 ㉠ 쿼터로터가 있다. 쿼터로터의 각 로터는 인접한 로터와는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 로터와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회전체에 달려 있는 물체에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힘인 토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전체인 로터를 가진 기체는 로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기체의 중심 부분인 동체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동체가 회전 운동을 하면 기체는 안정된 비행을 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체가 받는 토크의 회전력을 상쇄하여 힘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쿼터로터의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로터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동체가 안정화된다.

이러한 쿼터로터는 무선 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상하 이동인 스로틀(Throttle), 전후 이동인 피치(Pitch), 좌우 이동인 롤(Roll), 좌우 회전 이동인 요(Yaw)를 하면서 비행한다. 스로틀은 모든 로터를 동일한 속도로 증속 또는 감속시키는 방법으로, 로터를 증속시키면 기체가 상승하고 감속시키면 기체가 하강한다. 피치와 롤의 경우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하는데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뒤쪽 두 로터만 증속시키면 기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상대적으로 뒤쪽이 앞쪽보다 압력이 높아져 추력이 발생하여 기체가 이동하게 된다. 요는 대각선의 두 로터만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 가속된 로터들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기체가 회전하게 된다.

한편, 드론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드론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주로 사용되는 제어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되는 PID 제어가 있다. PID 제어기는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수식인 비례항(P), 적분항(I), 미분항(D)을 더해 제어량을 산출한다. 비례항(P)은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값인 설정값과 결괏값의 차이인 오차를 계산한 후 오차에 비례 상수를 곱하여 제어량을 산출한다. 비례 상수의 값이 클수록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빨라져 결괏값이 최초로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인 상승 시간이 짧아지지만, 비례 상수에 비례하여 오버슈트의 최댓값이 커진다. 오버슈트는 결괏값이 설정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오버슈트의 최댓값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피크 시간이라고 한다. 지나친 오버슈트는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여 드론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든다.

PID 제어기는 비례항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설정값과 결괏값의 오차를 줄이므로, 기체는 오차가 설정값의 5% 이내로 들어오는 정착 시간에 도달하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정상 상태가 되지만 비례항은 미세한 조작이 힘들어 정상 상태가 되더라도 오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정상 상태 오차라고 한다.

PID 제어기에서는 이러한 비례항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 적분항(I)을 추가하여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한다. 적분항은 설정값과 결괏값의 오차를 누적한 적분값에 적분 상수를 곱하여 제어량을 산출하는데, 이것이 비례항을 통해 산출된 제어량에 더해져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오차가 없도록 한다.

PID 제어기에서 ㉣ 미분항(D)은 오버슈트에 따른 기체의 과도한 움직임이나 장애물, 바람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체의 변화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된다. 미분항은 설정값과 결괏값의 오차의 변화량에 미분 상수를 곱하여 제어량을 산출한다. 따라서 만약 오차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미분항의 값은 작아 제어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오차의 변화가 크다면 미분항의 값은 커지게 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제어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3.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PID 제어기는 드론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수식을 활용한다.
- ② PID 제어기에서 비례 상수의 값이 클수록 오버슈트의 최댓값은 커진다.
- ③ 고정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날개 아래쪽의 압력이 날개 위쪽의 압력보다 높다.
- ④ PID 제어기에서 결괏값이 목표값에 가까워질수록 제어 시스템의 오차는 작아진다.
- ⑤ PID 제어기에서 적분항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설정값과 결괏값의 오차는 점점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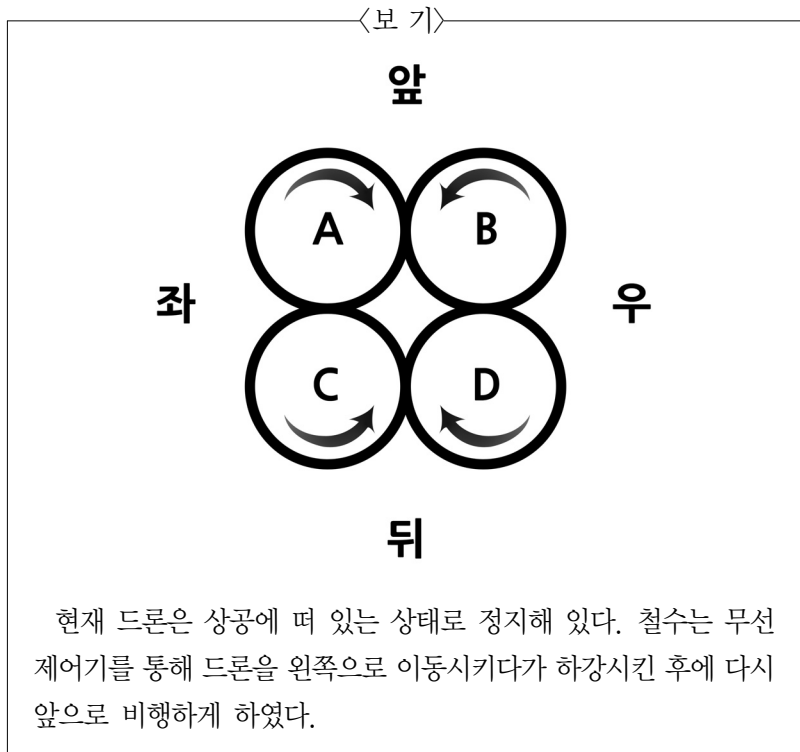
34.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단회전날개식 헬리콥터는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를 가지고 있다.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가 회전하며 공중으로 상승하는데, 메인 로터는 양력을 발생시키고, 테일 로터는 메인 로터에 의해 기체의 동체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헬리콥터는 조종사가 조종간을 움직여 메인 로터의 각도를 조절하여 기체를 앞으로 숙이면 추력이 발생해 전진 비행하게 되며 테일 로터의 각도를 조절하여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① ㉠은 ㉣와 달리 로터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회전하려는 힘이 발생한다.
- ② ㉣는 ㉠과 달리 동체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달고 있다.
- ③ ㉠은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로터의 속도를 조절하고, ㉣는 로터의 각도를 조절한다.
- ④ ㉠과 ㉣ 모두 전진 비행을 할 때 기체를 기울여 추력을 발생시킨다.
- ⑤ ㉠과 ㉣는 모두 회전하는 날개가 양력을 발생시켜 기체를 상승시킨다.

35. <보기>와 같이 ‘쿼터로터’를 제어했을 때 그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로터 A는 한 번의 감속도 하지 않고 제어되었다.
- ② 로터 B는 증속, 감속, 증속의 순서로 제어되었다.
- ③ 로터 C는 감속, 증속, 감속의 순서로 제어되었다.
- ④ 로터 D는 증속, 감속, 증속의 순서로 제어되었다.
- ⑤ 로터 B와 C는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제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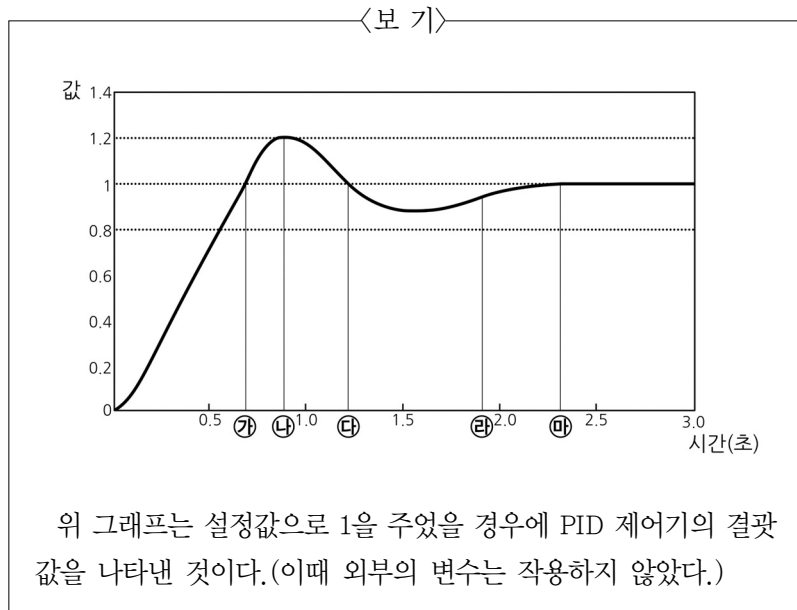
3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속된 로터에 의해 동체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 ② 가속된 로터에 의해 동체가 받는 토크의 회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 ③ 가속된 로터에 의해 동체가 토크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 ④ 가속된 로터의 회전력과 동체의 토크 회전력이 상쇄되었기 때문에
- ⑤ 가속된 로터의 회전력과 인접한 로터들의 회전력이 상쇄되었기 때문에

3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비례항과 독립적으로 제어를 수행하고, ㉡는 비례항을 활용해 제어를 수행한다.
- ② ㉠은 급격한 오차의 변화를 제어하고, ㉡는 정상 상태 오차가 제거 되도록 결괏값을 제어한다.
- ③ ㉠은 지속적으로 누적된 오차를 활용하여 제어하고, ㉡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결괏값의 변화를 활용하여 제어한다.
- ④ ㉠은 ㉡보다 제어의 정밀성이 떨어지지만 외부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 ⑤ ㉡는 ㉠과 달리 비례항으로 제어되지 않는 결괏값을 제어한다.

38. 위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그래프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까지는 상승 시간으로 비례 상수의 크기를 키우면 더 짧아질 수 있다.
- ② ㉡까지는 피크 시간으로 ㉡에서는 설정값과 결괏값의 오차가 최대가 된다.
- ③ ㉢부터 ㉣까지는 오버슈트가 발생하며 ㉣ 이후로는 오버슈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부터 ㉥까지가 정착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 구간에서의 결괏값은 0.95 이상이다.
- ⑤ ㉥부터는 정상 상태 오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101. 노동청 건물 안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태일. 방마다 기웃거린다. 팻말을 쳐다보며 이 방 저 방 두어 곳을 더 들어갔다가 나온다. ㉠ 태일은 누런 서류 봉투를 끼고, 바바리코트 차림에다 스포츠가리 머리에는 베레모를 썼다.

S#102. 임 국장 방
 임 국장이 책상에 앉아 결재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책상 위에는 ‘林正三’이라는 ㉡ 자개 명패가 보인다. 문이 열리고 태일이 들어선다.
 태일: 저……. 안녕하십니까?
 임 국장: ㉢ 아이고, 예예! (반색하는 표정)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서 일어나 태일을 소파로 이끈다) 자, 이리 와서 앉으시죠.

태일 약간 얼떨떨하다. 그러나 임 국장이 이끄는 대로 소파에 앉는다.

임 국장: 먼저 차 한잔 하실까요?

태일: 네? 저어……. 괜찮습니다.

임 국장: 그럼 차는 이따가 하시고……. (담배를 권한다) 담배 안 태우 십니까?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그런데 어느 신문사에 계시는 분이더라?

태일: 저는……. 평화시장에 있습니다.

임 국장: 평화시장?

태일: 저는 평화시장 피복 공장에서 일하는 재단삽니다. 국장님께 건의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봉투서 ㉑ 서류를 꺼낸다) 지금 평화시장 직공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태를 다 적어 왔으니깐 보시고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국장: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른다) 김 양! 김 양아! (여직원 놀라 달려온다) 도대체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내 방에 아무나 막 들어오게 만들어? 여기서, 영 시장 바닥이야? 뭐야?

김양: ㉒ 죄송합니다. 저는 기자 분인 줄 알고……. (태일을 떠밀며) 빨리 나가요.

태일: 국장님. 제 얘길 좀 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계속 떠밀린다. 남자 직원까지 들어와 태일을 밀어내는데, 기자들 몇 명 들어선다.)

기자 1: 안녕하세요?

임 국장: 아이고 이제들 오십니까?

기자 1: ㉓ 국정 조사 준비는 잘 돼 갑니까?

임 국장: 죽을 지경입니다. 자 기자님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일 떠밀려 나가며, 기자들을 본다.

S#103. 노동청 정문 앞

기자들 몇 명이 나오고 있다. 정문 옆에 서 있던 태일, 기자들이 지나갈 때 머뭇거리며 망설이다가 마침내 마지막 기자 2의 뒤를 따라간다.

태일: 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기자 2: 나요?

태일: 예, 기자님이시지요?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공원입니다. 평화시장 근로자들 실태에 대해서 기자님께 알려 드릴 것이 있는데, 잠깐만 시간을 내 주시겠습니까?

태일의 표정이 간절하다. 기자 2 망설이며 시계를 들여다본다.
<중략>

S#109. 평화시장 앞거리

어느 레코드 가게에서 그 시절의 뽕짝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열창 안으로 연속극을 방송하고 있는 흑백 텔레비전이 보인다. 사람들이 모여서서 소리 나지 않는 연속극을 보고 있다. 지나가던 신문팔이 소년도 서서 연속극을 본다. 사이 태일과 개남이 나타나, 신문팔이에게서 신문을 산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이리저리 신문을 펴 보다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태일과 개남. TV를 보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본다.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신문 문치를 모두 사는 태일과 개남. 어리둥절해하는 신문팔이. 신문 문치를 옆구리에 끼고 달리는 태일과 개남.

S#110. 평화시장

태일과 개남, 진철 등이 신문을 돌리고 있다.

개남: 신문이요. 신문! 평화시장 특보요!

태일: 평화시장 실태가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들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직원들이 나와 너도나도 한 장씩을 산다. 모여서 신문을 보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들

㉔ ‘골방서 하루에 16시간 노동’ 그 부제로 ‘소녀 등 2만여 명 혹사’, ‘거의 직업병…… 노동청 뒤늦게 고발키로’, ‘근로 조건 영점…… 평화시장 피복 공장’ 등이 있는 ○○신문 지면.

S#111. 평화시장 주식회사 사무실

‘평화시장 주식회사’라는 간판 앞에 태일, 개남, 진철. 태일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친구들 그 뒤를 따른다. 그들의 시점으로 카메라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간다. 소파에 사장들 몇 명이 앉아 있다가 이쪽을 돌아본다. 카메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탁자 위에 폭로 기사가 실린 ㉕ 신문들 펼쳐져 있다. 갖가지 자세로 앉은 사장들.

태일: (그들에게 서류를 내민다) 이게 우리들의 건의섭니다.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 1: 아, 우선 앉아 봐. 앉아서 ㉖ 차나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하자구. 대화를 하면 안 될 게 없단 말이야. 마침 차 오네. 어이 이리 가져와.

다방 레지가 차를 들고 들어온다. ㉗ 그러나 태일 일행 그 자리에 서 있다.

삼 사장: (레지가 차를 따르는 동안, 서류를 읽어 보며) 다락방 철폐, 환풍기 설치, 조명 시설 개선, 여성 생리 휴가의 보장…….

태일: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며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2: 며칠이 지나서 대답을 안 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개남: 그럼 행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협 사장: 행동? 무슨 행동?

태일: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가자.

사장들 기가 막힌 표정으로 물러가는 태일 일행을 본다.

- 이창동,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

39.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일’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동청의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린다.
- ② ‘임 국장’은 ‘태일’이 약속도 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온 일에 불쾌해하며 직원을 시켜 내쫓는다.
- ③ ‘태일’은 ‘임 국장’의 방에서 설핏 본 기자들을 기다렸다가 만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 ④ ‘태일’과 ‘개남’은 자신들의 기대대로 신문에 자신들에 관한 기사가 나오자 놀라며 신이 나 한다.
- ⑤ ‘사장 2’는 ‘태일’의 제안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임 국장’의 권위 의식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는 평화시장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태일’이 준비한 것이다.
- ③ ㉢는 ‘태일’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로 작용한다.
- ④ ㉣는 ‘태일’ 일행과 평화시장 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⑤ ㉣는 ‘태일’ 일행의 마음을 일단 진정시켜 회유해 보려는 사장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소재이다.

41.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할 때, ㉠~㉣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의상과 소품 등을 통해 태일이 노동을 하던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어.
- ② ㉡은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다는 듯이 반가워하는 연기를 요구해야겠어.
- ③ ㉢은 김 양 역할의 배우가 임 국장의 말을 들은 뒤에 태일을 향해 대사와 시선이 옮겨지도록 해야겠어.
- ④ ㉣은 지면에 있는 글자들이 관객들에게 잘 보이도록 클로즈업하여 제시해서 신문의 내용을 드러내야겠어.
- ⑤ ㉣은 대화 상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해서 어떻게 행동할 줄 모르고 당황해하는 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신부집에서는 고금에 없는 변을 당하고 황황망조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다만 신부는 세상에 살지 못할 것이라 하여 방 안에 가두고 굶겨 죽이리라 하고, 신랑의 시신은 염습입관하여 가후에 전도하고 장 씨의 분부를 기다리더라.

차설, 신부가 곳집에 갇혀 있다가 창망한 마음을 진정하고 놀란 정신을 수습하여 깊이 생각한즉 아무 계책도 나지 않음이라. 몸이 공연히 죽으면 천명(賤名)을 벗을 도리도 없으며, 남편의 원수 또한 갚을 길이 없는지라.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그 모친을 뵈옵기를 청하니, 그 모친이 불쌍히 여겨 가만히 와서 보거늘, 김씨 모친을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소녀 만고(萬古)에 없는 변을 당한 목숨이 마땅히 바빠 죽을 것이 옳을 일로되, 제 무죄함은 고사하고 ㉠ 신랑의 죽을 또한 괴상한 즉 **밝혀낼 도리가 있**사오니, 제가 남복(男服)으로 행장(行裝)을 차리고 돈을 노자로 갖추어 주시면 불과 며칠에 가히 알 도리가 있을 것이요, 만일 알지 못하는 날 돌아와 죽어도 늦지 아니할 듯하오이다.”

그 부인이 듣고 이윽히 생각하여 이르기를,
“만일 아는 일이 있을진댄 가하거니와, 아는 도리가 없다 하여도 앞에서 죽느니보다 나가서 죽는 것이 정히 낫도다.”

서둘러 행구를 차려 주고 그 부친 모르게 가만히 보내더라.
이때 신부가 **도령의 복색**으로 청도포에 색대를 띠고 복건을 쓰고 보교를 타고 하인을 거느리고 **신랑집 근처로 향하여** 동네의 행실 있는 집으로 찾아가니, 과연 한 집이 있더라.

주인 노파 아뢰기를,
“주인은 밥장사도 할 줄 모르고 집이 좁고 누추하여 행차(行次)를 대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하리(下吏)가 말하되,
“이 행차는 아무 고을 원님 자제로, 그 부친의 고을로 가는 길에 홀연히 병환이 나시어 길을 갈 수 없으니, 방이 누추하여도 상관할 바 없고 음식을 할 줄 몰라도 탓하지 아니하니, 조용히만 있어 며칠 사이에 병환이 차도가 계시면 즉시 떠날 터이라. 상급(賞給)이 후하리니 아무쪼록 방을 치우도록 하라.”

노파가 응낙하고 방을 정히 치우고 잡인의 출입을 금하더라. 이에 사치를 정하고 병을 조리할 새, 잡인을 일절 엄금하고, 노파를 자주 불러 좋은 말로 위로하고 ㉡ **전곡과 피륙**을 많이 내리시며 진수성찬에 찬합을 열고 음식을 나누니, 노파로서도 도령의 인물과 인의가 절등함에 탄복하고, 호연으로 위로함에 감동하고, 돈과 명주를 많이 줌에 감복하여 어찌할 줄 모르더라. 이러구러 며칠이 지나매 서로가 점점 친숙하여, 노파는 잠시도 도령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백 가지로 도령을 위로하여 병환이 속히 낫기를 빌더라.

하루는 밤이 깊어 어떤 사람이 노파를 찾는데, 심히 비밀히 수작하는지라. 신부가 정신을 수습하고 가만히 들어 보니 호모호자하는 소리가 필연 모자간이로되, 언어는 비밀하여 그 속을 알지 못하겠더라. 이윽고 사람은 가고 노파가 들어오는지라. 기색이 심히 참담한 모양이라. 이에 신부가 심히 의심하여 짐짓 노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를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차마 기만할 길이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뢰되,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들인즉, 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우고, 성행(性行)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 치기를 즐기우는 탓에 항상 근심하옵더니, 저 안마을 큰기와집은 장 사랑 덕이온데, 장 사랑의 전취 부인 연 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숙녀이옵더니, 자제 한 분만을 두고 불행히 일찍 상처하시고 후취 부인 유 씨 또한 인물이 절등하옵고 재질이 능란하시오나,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옵기로 사랑이 늘 근심하더니,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덕으로 지내옵는데, 그 유 씨 부인이 흥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삼으려 하여, 혼인날 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 씨 부인에게 바쳤삽더니, 그 뒤로 사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시매, 유 씨가 황망공겁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곳간 쌀독에 넣고 곳간 문을 잠가옵는데, 장 사랑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앉아 침식을 전폐하신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시니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이리므로 유 씨만 근심할 뿐 아니오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주하려는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러 왔사옵니다.”

김 씨가 주인 ㉠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모골이 송연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제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 떠나 바로 장 시랑댁을 찾아가 시랑께 뵈옵기를 청하니, 시랑이 병을 핑계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으로 아뢰어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나중에는 아무 동네 아무 집 자식이 중대한 사단이 있사옵기로 안으로 들어가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즉, 그제야 들어오라 하거늘, 김 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랑께 뵈옵고 아뢰기를,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오라 궁천지통(窮天之痛)한 죄인 며느리이옵기로, 상고하여 볼 일이 있사와 염치를 불고하옵고 왔사오니 ㉡ 댁의 곳간 문 열쇠를 주시오면 상고하올 일이 있삽나이다.”

〈중략〉

[A] 이때 김 씨가 **친정에 돌아와서 목숨을 자진**하여 신랑을 좃고 여자의 행실을 다하려 하더니, 마침 시집으로부터 사람이 오되 신랑의 신체를 묻으라 하며, 자고로 전해 오던 청전구물(靑氈舊物)과 전답 문권을 모두 다 보내었으니 은근히 중대한 부탁이라. 이러므로 감히 죽지 못하고 구구히 목숨을 보전하더니, 수삼 삭이 지나 복중에 태기가 완연하여 갈수록 배가 높아지더니 십 삭이 차매 산짐이 있어 옥동자를 순산하니, 이와 같이 희한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리오. 이는 **혼인날 저녁**에 신방에 유태한 것이라. 대변과 환란을 지내고도 능히 무사하여 십 삭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으니, 기쁨과 경사는 이루 측량하지 못하겠더라. 그 신통하고 기이함을 어디 비하리오. 아이의 이름은 해룡이라 하고 장중보옥같이 양육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해룡의 나이 삼, 사 세 되는지라. 신부가 생각한즉, ‘해룡의 나이 삼, 사 세 되도록 조부를 뵈옵지 못한 것은, 한(恨)함을 견디지 못하고 시아버지께서 생존하여 인간의 전후 일을 아주 끊어 버리고자 하시어 종적을 감추어 계신 것인즉, 해룡이 이미 세 살이 되었으며 천륜의 정을 완전하게 하여야 할 것이요, 또한 내 구구히 목숨을 보전하기는 시부모의 부탁을 말씀이요, 천만 의외의 혈육이 있으니 어찌 부모를 찾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어린아이가 강보를 면하였으니, 나로서는 노부를 찾아 모시고 돌아와 조손이 상면하고 여년을 마치게 하리라.’

이때 ㉢ 남복의 행장을 차릴 새, 좌우가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하더라.

- 작자 미상, 「김씨열행록」 -

4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의 방식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파의 아들은 유 씨 부인의 사주를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
- ② 김 씨는 살인의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 ③ 노파는 김 씨와 친분이 두터워져 그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였다.
- ④ 장 시랑은 유 씨 부인이 전취 부인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 ⑤ 유 씨 부인은 장 시랑이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없애지 못하였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 씨 부인이 전취 자식 대신 자신의 소생을 종가로 삼으려 한 데서 비롯되었다.
- ② ㉡: 갈 곳이 없었던 자신을 돌봐 주었던 노파에 대한 김 씨의 고마움이 담겨 있다.
- ③ ㉢: 신랑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 ④ ㉣: 신랑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이 있는 곳이다.
- ⑤ ㉤: 천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김 씨가 시아버지를 직접 찾아 나서려는 차림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씨열행록」은 혼인한 날 일어난 사건을 신부가 남장을 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남장 신부 모티브’ 이야기이다. 남장은 여성의 외부 활동이 제약을 받던 시기에 이를 극복하고 고난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작품에서는 김 씨의 지혜를 강조하며, 불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때 극복할 수 있다는 당대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혼인 이야기 및 여성 주인공의 설정은 당대 소설 향유층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김 씨가 신랑의 죽음에 대해 ‘밝혀낼 도리가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고난 극복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군.
- ② 김 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밖으로 나간 것은 당시에 여성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겠군.
- ③ 김 씨가 ‘신랑집 근처로 향하여’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군.
- ④ 김 씨가 ‘친정에 돌아와서 목숨을 자진’하려던 마음을 접은 것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겠군.
- ⑤ ‘혼인날 저녁’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정한 것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